

국어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포함되나

“국어교육 목표·정체성 고려해 다양한 고유어 교육 방안 모색”

2015년 교육과정부터 성취기준서 빠져...관련단체 포함 요구

새 국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순우리말(토박이말)을 넣어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팀은 2022 개정 국어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교육을 성취기준 일부나 해설, 고려사항 등으로 넣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2009년, 2011년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엔 이 내용이 빠졌고, 최근 공개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지난 1일 토박이말바라기,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교원과 한글 단체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개정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관련 성취기준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어 과목 공청회에도 참석해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개발팀은 순우리말 교육 내용을 ‘성취기준’ 일부에 넣는 안, ‘성취기준 해설’이나 ‘영역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적으로 보완·수정하는 안을 우선 고민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중에서 성취기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교과서 제작이나 교과목 반영 등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

다만 정부는 최근 학생들의 학습량을 좌우하는 성취기준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과정을 설계하고 있는 데다 새로운 분야의 성취기준도 추가되고 있어 성취기준을 다시 추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습량 감축 기조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개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국어교육의 목표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순우리말을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토박이말바라기 상임이사는 “토박이말을 해설이나 고려사항이 아닌 성취기준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성취기준에 토박이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교과서에 반영되는 비중도 줄어든다. 학생들이 토박이말을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송원대 철도운전시스템학과 면허취득 학생들 모습.

송원대, 철도기관사 면허 24명 취득

호남 유일 철도특성화 대학...모의연습·실습장비 확충 총력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철도운전시스템학과(학과장 인태명) 재학생들이 대거 철도기관사 면허를 취득해 주목받고 있다.

10일 송원대에 따르면 철도운전시스템학과 재학생 24명(지난 9월 현재)이 철도기관사 면허를 취득했다. 같은 학교에서 무려 24명이 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철도운전시스템학과 개설 이래 가장 큰 결실이라고 송원대는 전했다. 송원대는 1996년 사립대학 최초로 철도운수경영학과를 개설하는 등 철도인력 양성을 선도해왔다.

최수태 총장이 ‘호남 유일의 철도특성화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철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과 투자를 지속한 결과로 해석된다.

송원대는 철도기관사 양성을 위한 특화된 전공교과목 구성, 철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수진 영입, 운전모의연습기와 같은 실습장비의 확충 등 철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총력을 쏟았다.

철도기관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운전교육훈련 전문기관인 철도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송원대는 이런 자격시험에 유리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철도교육훈련기관으로 철도운전아카데미와 철도관제아카데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철도기관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철도운전시스템학과와 더불어 철도운전관계학과, 철도차량전기시스템학과, 철도경영학과 등 4개 철도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송원대 철도운전시스템학과 박주원 학회장(3학년)은 “우리와 학생들은 철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구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철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험있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학과에서 보유한 모의운전연습기로 반복해서 연습하여 큰 어려움 없이 3학년 대부분이 면허를 취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교사 줄이면 5년 후 폐교 늘어” 교원감소 폐지 1만 서명운동

전남교육회의

전남지역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초·중·고 교사 감소 정책을 농산어촌과 원도심이 많은 전남교육을 소멸시키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1만도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전남교육회의는 “해방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는 초·중·고 교사 감소 정책을 펼쳐 전남은 중·고등교사 279명, 초등교사 50명이 감축됐다”며 “전남교육살리기 1만인 도민 선언(교육선

언)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전남교육청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따라 3-7학년 규모의 중·고등학교 교사 1명씩 줄이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중학교 65%, 고등학교 22%로 군 지역과 원도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의 수를 줄이는 정책을 5년간 지속하면 사·읍 단위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폐교될 것이며 지역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산어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남교육청의 강력한 의지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시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진로 탐색과 배움 중심으로 바꾸려는 전남혁신학교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터를 잡고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을 위한 교육이자, 전남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며 “도 교육청은 교원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키르기스스탄 대학들과 교육 교류 협력 강화 본격화

호남대학교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대학들과 교류 협력에 나섰다. 10일 호남대에 따르면 최근 박상철 총장이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 직속 대학인 대통령 아카데미와 키르기스스탄 국립예술문화대학을 방문, 향후 협력 진행과 함께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 총장은 한·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호남대학교 국제교류단을 이끌고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다.

〈사진〉

박 총장은 손완이 국제교류처장, 최영화 평생교육원장, 윤영 한국어교육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 직속 대학인 대통령 아카데미(The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 named Zh. Abdrakhmanov)를 방문, 악마탈리브 알마즈베크(AKMATALIEV Almazbek) 총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대학의 교육 교류 확대와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통령 아카데미는 키르기스스탄의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지도자와 정부 행정 관료들을 양성해 내는 대학으로, 행정, 경제, 법학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대학이다. 호남대는 사회경영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상생을 위한 교육 및 교류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박 총장 일행은 키르기스스탄 최고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립문화예술대학도 방문해 초·도노브 마마사리프 마미토비츠(Chotonov Mamasharip Mamytovich)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문화 예술 교육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무용실, 전통 악기연주실 등 대학의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호남대는 미디어영상공연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한·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 뮤지컬 공연팀’이 지난 2일과 6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나는 고려인이다’(총연출 최영화 교수) 뮤지컬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것을 계기로, 호남대학교가 가진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글로벌관광사업단, 2021성과평가 ‘최고 등급’

동신대학교 전남형 글로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 류갑상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2021년도 전남도 산학협력 취업패키지과정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과평가는 매년 전남도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에 참여한 9개 대학, 20개 사업단의 ▲취업률 ▲현장실습 시간 ▲참여기업 수 ▲만족도 조사 결과 등 9개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동신대 글로벌관광사업단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NCS 기반의 특화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코디네이터, 1대1 맞춤형 취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참여 학생과 가족기업 간 취업 연계, 졸업생들의 지역 정착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성과 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반영한 사업단 프로그램 운영, 동신대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사)스마트인재개발원의 협력 체계 구축, 장학금 유지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신대 류갑상 사업단장은 “스마트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빅데이터 기반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에는 동신대 관광경영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중국어학과, 관광일본어학과와 73개 가족기업이 참여해 전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